



# “안전한 건설가설 자재의 제조를 위하여”

- 부산가설정공 -



김광부 | 대표

“저희 회사는 1978년 형제상회로 창설하여 그 후 1984년 부산강진으로 상호변경하고,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가설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전문업체인 부산가설정공을 재설립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명품은 건설가설장비 및 전기분야에 온 국민이 사용하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플러그(plug)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속에 꼭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제품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열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토목 공사나 건축에 있어 가설자재는 뼈대 구실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매년 필요한 만큼 보유하기에는 사뭇 부담스럽다. 각기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만큼의 가설자재를 임대해주거나 중고 가설장비를 신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필수적이



▲ 로봇 용접자동차

다. 부산가설정공 김광부 대표는 가설자재 임대로 시작해 기존의 가설자재의 단점을 보완한 특허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 가설자재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건축자재 임대업 30년 역사를 가진 김 대표는 제조업에 비해 정부의 관심

이나 지원이 미흡한 임대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설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허만도 7가지를 받았다. 하지만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자금 지원 환경으로 더 많은 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제품화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털어놓는다.

회사 설립동기에 대해서 김광부 대표는 "건설가설 자재 중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인 안전발판을 신기술과 첨단장비를 갖추어 생산,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특허종목인 전기안전 대기전력 차단 플러그 등 여러 종류를 발명하게 되어 부산가설 정공을 설립하였습니다."라고 설립당시를 회상했다.

부산가설정공은 1500여 평의 생산 공장과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초대함도로 수요자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으며 생산된 신제품을 임대해 사용자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한번 임대한 제품을 완벽하게 수리 보수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고가로 판매하여 구매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을 또 한번 주고 있어 이것이 부산가설정공만의 자랑이 되고 있다.

가설자재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요즘 생산이 부족해 공장부지 확보가 절실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로 인해

확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래서 요즘 공장 설비 확충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도 가설자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 대표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홀로서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당당하게 일어서는 부산가설정공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

김 대표의 경영철학을 들어보자,

"현재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자재 생산 및 임대, 판매를 약30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강진, 부산가설정공은 건축자재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남다른 노력과 보다 나은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집념으로 강한 의지와 못할것 없다는 과감한 불퇴전의 도전정신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되었고, 말보다 실천이 저의 사업집행의 보배요 나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일과는 계획된 일과로 그날에 꼭 처리하는 습관을 사업창설 당시부터 줄 곧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 60세때 구



▲ 성형자동화시스템

호를 내걸고 시작한 것이 나의 회갑때 2001년도 (음)2월 26일자 '내가 못다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작심했습니다." 뒤이어 마지막으로 "못할 것이 없다, 해낼수있다, 하면 된다는 故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말보다 실행을,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실천을 행하는 것이 저의 궁지이자 사명감입니다."